

## 이야기 8 : 기드온과 삼백 용사

주제말씀  
[사사기 6:12]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열나라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셔서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군사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기드온은 전쟁터에 나갈 이스라엘 병사를 많이 모집하였어요.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드온! 너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너무 많구나.

만약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면, 그 사람들은 나의 도움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하여 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병사들에게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말하여 병사의 수를 줄여라.”

기드온이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22,000명의 병사가 떠나고 10,000명의 병사만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기드온은 병사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물을 손으로 떠 마시는 자만을 병사로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끝까지 남은 병사는 300명이었어요.

그 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이 감추어진 함아리를 들게 했어요.

한밤중에 미디안의 보초병이 교대하자마자 기드온과 300명 병사들이 다같이 나팔을 불며 함아리를 굴러내려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횃불과 나팔을 들고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 소리에 미디안 병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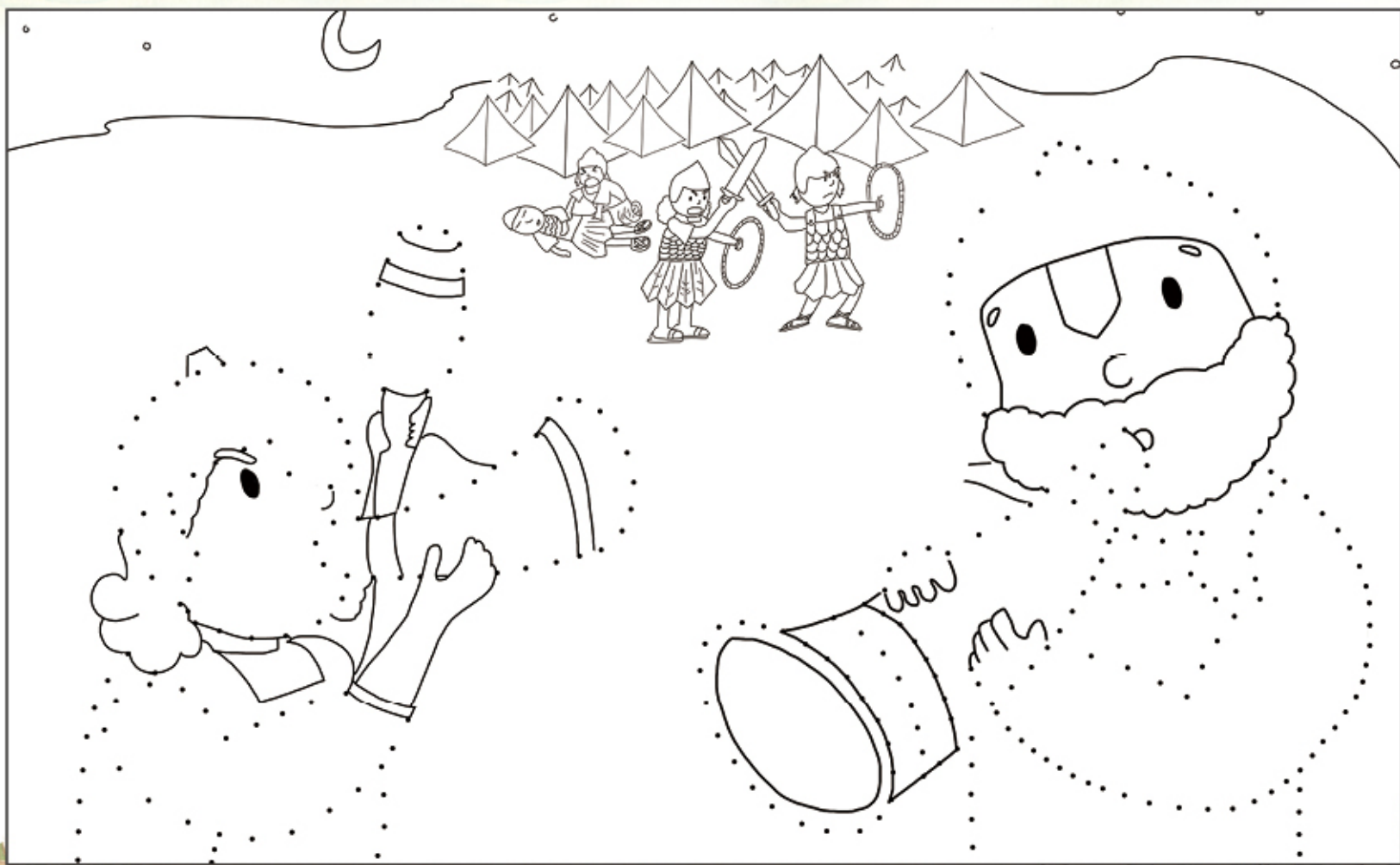
그들은 아우성을 치며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의 병사만으로 많은 미디안 병사들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사사기 6:12)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